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됨에 따라 코비트 19 감염 확대 방지를 향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후지사와 시장 스즈키 쓰네오입니다.

오늘 부터 긴급사태 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본시의 코비트 19 감염 환자수를 보면 4월 중순을 피크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선언 사태후 외출 자제나 밀폐공간 · 밀집장소 · 밀접장면이라고 불리는 「3대밀접」을 피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코비드 19 감염확대 방지를 향해 나라 · 현 · 시에서 발표한 다양한 요청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든 상황에 감염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목숨걸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 종사자를 비롯해 시민 생활을 뒷받치고 있는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며,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코비드 19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인 대처방침으로, 가나가와현은 감염확대 방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정 경계 도도후현 으로서 계속해 지정되고 있습니다.

본시의 감염자수는 언제 증가로 돌아설까 방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시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대방지를 실시해, PCR 검사 센터의 개설, 학교의 휴교, 이벤트 등의 중지나 연기, 시 시설의 휴관의 실시, 쇼난 해안 주변의 도로정체나 관광객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내의 중소기업 · 개인사업주에 대해 후지사와시 코비드 19 감염증 방지 협력금의 교부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코비드 19 감염증 긴급경제 대책에 따른 특별 정액 급부금이나 육아세대에 임시특별 급부금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등의 자세한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됨에 따라 정부나 현, 관계기관과 연계해 감염확대 방지를 향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이나 사업자등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갈 것입니다.

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코비드 19 감염확대 방지를 착실히 전진시켜 빠른 시일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올(All)후지사와로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위기를 극복해가고자 합니다.

계속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7일

후지사와 시장 스즈키 쓰네오